

【 논문 】

옥화구곡의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 : 옥화 지역의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박구원*

옥화구곡은 아직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구곡이 마을과 함께 발전해 온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옥화 지역의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옥화구곡의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을 검토한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옥화구곡은 다른 구곡과 같이 한 개인에 의해 일시에 창설된 것이 아니라, 4단계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옥화 지역의 구곡과 마을이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구곡을 「일시적인 거처」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지」로 이용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들은 고매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상당히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구곡과 그 문화(자연 속에서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고, 교류하는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가례와 향약, 그리고 거문고와 육가와 같은 시문학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옥화의 인물과 문화는, 밖으로는 청주사림과 향촌 문화를 탄생시키고, 안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협업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기술했다.

주제어_ 옥화구곡, 마을, 발전과정, 장소적 특성, 윤사석 · 박근원 · 이득윤 · 윤승임

*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parkfor@cju.ac.kr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lac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Okhwa-gugok

: Based on on the people involved in Okhwa area

Park, Gu Won

Okhwagugok is not well known to the outside, but Gugok has a unique history of developing with the village.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of Okhwagugok, focusing on related people in Okhwa area. As a result of the study, several facts are found as follows.

It is confirmed that Okhwagugok was not created at once by one individual like other gugoks, but gradually developed through a four-step process. In addition, the reason why Gugok and villages in the Okhwa area were able to develop together is that Gugok was used as a practical "living place" rather than a "temporary residence."

On the other hand, they are developing not noble philosophy or ideas, but Gugok and its culture (a culture of learning, practicing, and exchanging studies in nature) in a fairly practical and practical aspect. As a way to practice this, it appears that poetic literature such as Gare and Hyangyak(family rites and incense), and Geomungo and Yukga are developing. In addition, these characters and cultures of Okhwa appear to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reating Cheongju Sarim and Hyangchon culture outside, and developing a collaborative culture that lives together inside.

Keywords_ Okhwagugok, Village, Development Process, Place Cultural Characteristics, Sa-sock Yun, Kon-won Park, Deuk-yoon Lee, Seung-im Yun.

I. 서론

청주시 외곽에는 「옥화구경」 또는 「옥화구곡」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운암리, 옥화리, 월용리, 금관리, 어암리, 계원리에 걸쳐있는 9개의 자연경관 자원을 말하며, 이들은 박대천을 따라 약 13km 내에 분포해 있다. 이곳은 과거 청원군 시절에 늘어나는 관광·레크리에이션활동 수요에 대응해, 1990년 「옥화구경」으로 처음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그 이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곳은 과거 「옥화구곡」으로 설정되어 발전해 온 곳이다(이상주, 2001/2005/2007). 따라서 현재 「옥화구경」으로 불리고 있는 이곳은, 실은 「옥화구곡」을 계승한 경승자원으로, 팔경(八景)보다는 구곡(九曲)의 의미가 크다.

그런데 옥화구곡은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 그 하나는 옥화구곡이 다른 구곡과는 달리 마을과 함께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구곡 및 마을의 발전에 있어서 4명의 지역 인물이 깊이 관련되고 있다는 점이다(박구원, 2013). 이것은 하나의 특정한 인물을 위주로 발전되었거나, 지정만 된 채 그 실체가 모호한, 기존의 구곡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따라서 옥화구곡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이 밝혀진다면, 구곡 자원을 활용해 나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국내 구곡의 발전 유형과 문화를 새롭게 조명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옥화구곡에 대해서는, 이상주(2001/2005/2007)에 의해 구곡의 설정 시기와 구곡시에 대한 해석이 일부 이루어졌고, 박구원(2013)에 의해 옥화구곡의 관광 자원적 발전 특성이 일부 밝혀지고 있을 뿐, 그의 구체적인 발전과정이나 특성(구곡과 마을의 관계, 장소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옥화구곡의 특성을 밝히는 첫 번째 연구로서, 옥화구곡의 발전과정과 그의 장소적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일찍이 이상주(2006)는 「구곡과 팔경은 동양의 2대 산수문화(山水文化)이며, 구곡시와 팔경시는 동양의 2대 산수문학(山水文學)이다.」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렇듯 구곡의 설정과 그의 시문학(구곡시)은 한국인의 자연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한편 구곡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구곡의 장소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양식 등(2012)도 「구곡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경관과는 달리 그를 지정·운영하는 사람의 철학과 문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관광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나 행위적 영향 등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구곡의 특성을 밝히는 데는 그 구곡이 설정된 이유나 그의 시문학적 특성 못지않게, 거기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행위나 그 영향 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

해서는, 구곡 자체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타 구곡과 비교되는 특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옥화구곡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다루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우선 옥화 지역 내부로 국한시켜,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옥화구곡의 전체적인 발전과정과 그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는 주로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조사된 옥화 지역에 관한 자료를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마을의 유래와 풍속에 관한 자료, 관련 인물과 시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청주지역 사람과 관련한 주요 인물과 학맥을 다룬 연구다. 그러나 이들은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관련 인물에 대한 자료는 크게 부족해, 전체적인 발전과정 등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에 있는 자료를 하나로 모아, 이를 시간과 사건별로 구분했다. 그리고 옥화의 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새롭게 추가 조사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새롭게 정리·고찰했다.

(1) 우선 전체적인 스토리의 연계를 위해 「옥화구곡의 성립 및 발전과정」을 조사했다. 여기서는 옥화구곡과 관련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이 유입된 경로와 그 장소에서의 주요 활동을 조사해, 옥화구곡이 어떻게 성립·발전해왔는지 그 과정을 개략적으로 밝혔다. (2) 두 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옥화 지역의 발전 특성」을 조사했다. 여기서는 구곡과 마을의 변화적 관계를 체크하고, 옥화구곡시에 나타난 주요 인물과 지명을 조사해, 구곡과 마을이 결합되는 과정을 밝혔다. (3) 그리고 세 번째는 구곡에서 나타난 행위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옥화구곡의 장소적 특성」을 조사했다. 여기서는 옥화구곡과 관련된 4명의 인물이 그 장소에서 행한 행위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지역 내외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옥화구곡이 갖는 장소적 특성을 밝혔다.

Ⅲ. 옥화구곡의 성립 및 발전과정

옥화구곡의 성립 및 발전과정을 조사한 결과, 옥화구곡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를 거쳐 성립·발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1. 1400년대 : 박충좌의 후손들이 최치원의 전설이 있는 신성봉(계원리) 일대로 이주

옥화 지역에는 1400년대 들어 계원리 일원에 함양박씨가 이주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고려 말 유학자인 치암 박충좌(1287~1349)의 4대손 박송탕(朴崇湯 : 미상)이 청주지역에 이주해 오면서 이를 계기로 계원리 일원에 함양박씨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이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함양박씨 자료실(2014)과 함양박씨 세거유래(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를 통해 보면, 박충좌

의 3자인 박경이 옥천·청주 영상공파의 파조이고, 박경의 2자인 박문영이 청주파의 파조가 된다. 그리고 박송탕은 박문영의 손자로서 집현전(1420년 설치) 수찬을 거쳐 충청도 도사를 지냈는데, 이때 박송탕이 청주 근교(현재의 계원리 일대)로 이주하며 세가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¹⁾ 또한, 이 계원리 일대에는 신라 말기의 대학자 고운 최치원(857~미상)과 관련된 많은 전설과 지명이 남아 있고, 그를 기념하거나 찬양하는 시설이나 글도 적지 않다.²⁾ 그리고 관련 인물을 조사해 보면, 치암 박충좌(1287~1347)는 백이정을 통해 일찍부터 정주학을 공부한 인물로, 주자가례 등을 통해 성리학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장동익, 1992 ; 함양박씨 자료실, 2014). 따라서 그의 후손이 이곳으로 이주한 연유에는, 이러한 최치원에 대한 동경이나 자연 또는 학문적 삶에 대한 지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1500년대 : 자연 속에서 도(道)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문의 땅으로 발전

1) 만둔암 윤사석

옥화 지역이 좀 더 특별한 형태로 발전한 것은, 1500년대다. 「만둔암 집의공 낙향추모비(1983)」와 「경모사복원기(1989)」에 따르면, 파평윤씨 18대손 만둔암 윤사석(晩遜菴 尹師楮)이 연산군 때 관직을 버리고 1501년(연산군 7년) 가족을 데리고 청주 땅 옥화대에 내려와 「만경정(萬景亭)」과 「수훈정(修訓亭)」이란 작은 집을 짓고 주자와 도연명의 삶을 실천하며 후학을 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윤사석 묘비(1917)에 따르면, 파주에서 태어난 윤사석은 어려서부터 타고난 성품이 맑고, 정직하였으며, 나이 10세를 넘어서는 「경의재」라는 서재를 지어놓고 학문에만 열중하여 경전과 제자백가에 통달해 일가를 이루었다. 또한 연산군에게 직언하고 낙향할 정도로 의리와 지조가 높은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가 가족을 데리고 옥화대에 내려와 그 자신 「도연명의 후계자」로 칭하며 자연을 벗 삼아 도를 실천하자 그를 따르는 제자가 7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경모사복원기, 1989). 한편, 윤사석의 생몰연대에 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관련 인물을 탐색해 보면, 그는 소정공 윤곤(미상~1422)의 3대 후손이며, 판한성부사 윤희제(1380~1467)가 그의 조부가 된다. 그리고 세종의 부마인 윤사로(1423~1463)가 그의 친형이고, 충청도 도사를 역임한 윤사하(1436~1500)가 그의 4번째 동생으로 확인된다(파평윤씨 자료, 2022; 윤사하 묘비, 1917). 따라서 그가 옥화대에 내려온 것은, 정계를 떠나 주자와 도연명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장소를 특히 옥화대로 택한 것은, 그 장소가 갖는 특성(최치원의 전설, 자연적 삶)이나 윤사하 등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³⁾ 윤사석은 말년에 옥화

1) 『咸陽朴氏 世居由來』에는, 「次子 문영은 한성좌윤을 지내셨고, 공의 아들 성은 황해도 감사를 지내셨으며, 구 송탕은 수선으로 충청도 도사를 지내셨는데, 이것이 淸州世居의 由來다.」고 기술되어 있다(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2) 계원리에는 계원팔경, 계원찬가, 고운암, 후운정터가 있고, 최치원 선생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는 금단산, 최치원 선생이 학문을 연마했다는 신성봉 등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많은 전설과 지명이 남아 있다.

대를 거닐다 타계(홀연히 사라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평생 명리를 멀리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학문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호학의 유종이고 충절의 표본」으로 불린다(만둔암 집의공 낙향추모비, 1983). 파평윤씨 세거유래(청원향토문화연구원, 2006)에 따르면, 윤사석은 슬하에 3명의 아들(3남 1녀)을 두었는데, 그 중, 차남인 윤전(尹璜 1511~1583)이 보은군수를 역임한 후 옥화대로 돌아와 부친의 후사를 이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옥계 박근원

한편 1547년에는 함양박씨 마을에서 박송탕의 4대손(박충좌의 8대손)인 박근원이 태어난다. 옥화 지역에서 나고 자란 박근원(玉溪 朴坤元 1547~1607)은 33세의 늦은 나이에 문과에 합격해 성균관 진사에 이르렀으나, 곧 고향으로 돌아와(1580년으로 추정) 「서당」을 열고 학생들을 강학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함양박씨 중요 인물, 1983). 박근원은 외모가 단정하고 자질이 출중하여 주변의 존경을 받았으며,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즐겨했다. 벼슬길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은둔하면서 사서오경과 근사록을 읽고 고금 일에 박통하였으며, 마을 일에도 크게 앞장서 마을의 사표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함양박씨 자료실(2014)과 함양박씨 세거유래(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에 따르면, 박근원의 부친은 박잠(朴崙)이다. 박잠은 슬하에 박건원과 박근원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형 박건원은 무장으로서 부장판사를 지낸 후 금관에 터전을 잡고, 동생 박근원은 성균관 진사를 지낸 후 계원에 터를 잡으며, 금관과 계원 일대에 그 후손이 번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옥화 지역은, 서서히 구곡 문화가 시작되고, 자연 속에서 도(道)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문의 땅으로 발전하게 된다.

3. 1600년대 : 본격적인 구곡 문화의 탄생과 발전

1) 서계 이득운

옥화 지역은 1600년대 들어 또 한 번 크게 변화한다. 그 첫 번째는 1609년에 서계 이득운(西溪 李得胤, 1553~1630)이 광해군 때 혼란한 정계를 피해 옥화대로 내려와 구곡을 설정하고, 「춘풍당(春風

3) 윤사석의 증조인 윤곤은 백이와 숙제를 동경해 그의 아들을 윤희이, 윤희제로 지었고, 윤사석의 조부인 윤희제는 1410년 청주로 유배된 경험이 있다(국조인물고-윤곤; 조선왕조실록, 1410). 윤사석의 장인 박충함은 그의 형 박효암과 함께 충주박씨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중 박효암은 윤사석의 부친인 윤은과 매우 친교가 높았고, 충청도사와 청주 목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리고 윤사로(1423~1463)를 대신해 집안을 이끈 것은 동생 윤사하(1436~1500)였는데, 그는 충청도 도사를 역임한 인물이고, 충청도 도사 시절에는 「두울우주(두보의 시)」를 편찬하는 데도 크게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윤사석이 왜 옥화대로 내려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연고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堂)과 「추월정(秋月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주자의 길을 걷고자, 학문연구와 후학양성 등에 전념한 것이다⁴⁾. 조영임(2009)에 따르면, 이득윤은 청주 외곽에 있는 석화리(초정약수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섬계 이잠과 진주 강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친 이잠이 이후 청주 서쪽에 있는 수락동(옥화 지역 인근에 있는 마을. 가양리 수락동)으로 내려와 섬계학당을 운영함에 따라 이득윤도 수락동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국조인물고와 이득윤의 묘갈명(1999)에 따르면, 이득윤은 어려서부터 부친 이잠의 교육을 받았고, 20세가 넘어서는 서기와 박지화로부터 학문을 배웠는데, 매우 총명하여 제 선생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학문에도 크게 정진해 성리학과 역학 등에 매우 밝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때 박근원이 섬계 이잠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이득윤은 박근원과도 교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득윤은 1609년 옥화대로 내려와「옥화구곡」을 설정하고 제5곡에 「춘풍당」과 「추월정」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근원이 사망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이득윤이 옥화대로 내려와 구곡을 설정하고 생활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이구곡과 유사한 형태를 갖춘 수려한 경관과 수락동이 옥화 지역과 가까이 위치(약 9km)한 지리적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되지만⁵⁾, 옥화 지역이 갖는 남다른 연원과 박근원 등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 이득윤은 학문과 인품이 뛰어나 그가 옥화대에 내려와 도를 실천하고 강학을 하자 그를 따르는 사람(원근 각지에서 모여들어 옥화대를 넘나드는 문인)이 7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득윤의 「행장(서계집, 1833)」과 「돈헌문집(1890)」등에 따르면, 이득윤은 옥화대를 거닐다가 나이 78세에 타계했고, 그의 후사는 아들 이홍유(李弘有 1588~1671)로 이어진다.

- 4) 변시익(1598~1653)이 쓴 이득윤의 행장에는 서계 이득윤이 「1607년 淸州 西溪로 낙향하여 玉華洞에 玉華九曲을 설정하고 第五曲에 春風堂, 秋月軒 등을 짓고 학문에 전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서계집 1833). 또한 이경섭(1595~1671)이 1657년에 쓴 서계 이득윤의 묘갈명에는 「光海君 때에 국사가 날로 틀려 돌아가자 공이 이에 西溪 동쪽으로 수십 리(里)를 가서 옥화동(玉華洞)이라는 데에 옮겨 살았는데, 시내와 산이 굽이굽이 돌아서 무이(武夷, 주자가 살던 지명)와 흡사하였으므로 드디어 ‘구곡(九曲)’으로 이름을 짓고 제5곡에다 수 칸짜리 집을 얹어 당(堂)은 ‘춘풍(春風)’이라고 하였고 헌(軒)은 ‘추월(秋月)’이라 한 다음 좌우에다 도서를 쌓아 놓고 아침저녁으로 책권을 대하여 의리를 탐구하며 늙음이 장차 이르러 함도 깨닫지 못하면서 세상에는 족적을 끌고 오지 김사계(金沙溪)와 서신 왕복으로 태극도(太極圖) 및 주역을 논란(論難)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서계집, 1833). 이득윤의 행장에는 구곡의 설정 시기가 1607년으로 되어 있으나, 광해군이 임금으로 책봉된 것은 1609년이다. 따라서 이득윤이 옥화대에 내려온 것은 1607년이고, 구곡의 설정 시기는 1609년으로 보는 것이 바를 것으로 판단된다.
- 5) 이홍유가 쓴 「선고서계선생행장」에 따르면, 이득윤이 옥화대에 내려와 왜 구곡을 설정했는지가 나타난다. 「옥화동은 시내와 산이 수려하고 盤上의 형세가 굴곡이 있는데 높은 것은 반드시 푸른 낭떠러지가 병풍처럼 둘러 있고, 낮은 것은 반드시 물이 고여 연못을 이루어서 武夷九曲의 모습과 같아서 선생이 또한 구곡으로 이름을 짓고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며 소요하였다. 제 五曲에 이르러서는 이곳은 살만하다 하였다. 누대 끝을 보니 푸른 소나무 여덟아홉 그루가 낭떠러지를 따라 둘러섰는데 사철 그 절개를 변치 않았으니, 서계가 손수 배양하고 이에 이름을 붙이기를 세한정이라 하고 그 위에 별도로 한 정자를 지어서 정신과 심성을 수양하는 곳으로 삼았다. 춘풍당과 추월헌이라 편액을 하고 좌우에 책을 가득 채웠다.」(돈헌문집, 1890).
- 6) 국조인물초 등에 따르면, 이득윤의 9대조는 국내 성리학의 수용·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익제 이계현(1287~1367)이다. 그는 박충좌와 함께 고려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백이정의 제자였고, 이후, 국내 정주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득윤의 증조는 이공린(1437~1509)인데 그는 박팽년의 딸과 결혼해 「8별」이라 불리는 8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런데 이공린은 사육신 사건(1456)에 연루되어 외가(남양홍씨) 세거지인 미원면 가양리로 은거한다. 또한 1504년 갑자사화 때는 3남 이원이 죽고, 그 죄에 연좌되어 본인은 유배되고 나머지 아들들도 흩어지게 된다. 이후 이공린은 모든 관직을 멀리하고 가양리로 퇴거하여 막내아들(이공 1488~1537)과 지내게 되는데, 이 분(이공)이 섬계 이잠의 부친이자 이득윤의 조부가 된다. 그리고 이공의 둘째 아들(이득윤의 백부)은 楓溪六歌를 만든 이정(李淨 1520~1594)이고, 이 풍계육가는 이정이 옥화 지역에 머물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주이씨, 2016).

2) 주일재 윤승임

한편 『세심정중건비(洗心亭重建記), 1868』에 따르면, 1646년(인조 24년)에는 효종 때 장예원판결사를 지낸 주일재 윤승임(主一齋 尹昇任: 1603~1688)이 옥화대에 「세심정(洗心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후학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난다. 윤승임은 윤사석의 6세손으로 옥화대 근처에 있는 방촌에서 태어났다(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그는 어려서부터 이득윤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배우고 익혔으며, 평생을 서계 이득윤을 따르며 성실히 모셔 그 지극한 정성이 주변에 크게 회자하였고, 높은 학문으로 인해 그는 이후 사림의 종장으로 추대되어 옥화 지역의 학문과 교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용남, 2009). 관련 자료를 통해 보면 주일재는 「세심정」에서 홍석기(1606~1680), 송시열(1607~1689) 등과 많은 교류를 하다가, 1688년 85세의 나이에 옥화대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난다(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김용남, 2009).⁷⁾

마을 기록에 따르면, 옥화 지역이 크게 발전한 것은 이때부터다. 서계 이득윤은 낙향하여 무이구곡을 실현하기 위해 옥화 지역에 「구곡」을 설정하고, 5곡에 춘풍당과 추월정을 짓고 학문에 전진한 것이고, 이득윤의 학문과 자연적 삶은 아들 이홍유, 제자 윤승임,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제자인 홍석기⁸⁾(1673년 후운정을 세운 사람) 등으로 이어져, 옥화 지역은 작은 한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반촌(班村)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난다(강성복, 2002; 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4. 1700년대 이후 : 지역공동체 인식의 발전, 옥화구곡시의 탄생

옥화 지역에서는 1717년 이득윤과 윤승임을 흠모하던 문인과 지역유지 등에 의해 「승현사」가 건립되고, 이들 4명의 지역인물을 모시는 위패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매년 이들의 공덕을 함께 기리며 옥화 지역은 하나의 공동체 문화로 발전하고, 특히 이후 승현사가 「옥화서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사당 겸 학당으로서 발전하면서, 이러한 공동체 인식은 더욱 강화된다(김용남, 2009; 박구원, 2013). 통상 서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모시는 것으로서, 역사 속 인물이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을 배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옥화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 마을의 귀감이 되는 인물을 지역 성현으로 모시며, 함께 발전하는 특이한 역사를 갖는 것이다(박구원, 2013). 옥화서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특이한 삶과 문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옥화대 서쪽(박대천 상류)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어, 1800년대가 되면 옥화 지역은 그 영역이 운암리까지 확대된다. 옥화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1864~1871)에 따라 잠시 훼손되었으나, 1800년대 후반부터 이들의 후손과 후학들에 의해

7) 윤승임은 윤사석의 6대손이자 박근원의 외손자(그의 부친 윤수와 박근원의 딸이 결혼해 낳은 자식)가 된다. 그리고 그는 옥화대를 중심으로, 학문교류와 교화발전 등을 통해 이득윤의 학문과 정신을 더욱 발전시킨 인물이다(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김용남, 2009). 따라서 그는 파평윤씨, 함양박씨, 경주이씨 연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볼 수 있다.

관련 기록 및 시설이 복원되며 재건하게 된다(서계집 1833, 돈헌집 1890). 그리고 이러한 재건 과정에서 이득윤의 후손인 이필영(1853~1930)에 의해 「옥화구곡시」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상주, 2001/2007).

IV. 옥화 지역의 발전 특성

1. 4명의 지역인물과 구곡 및 마을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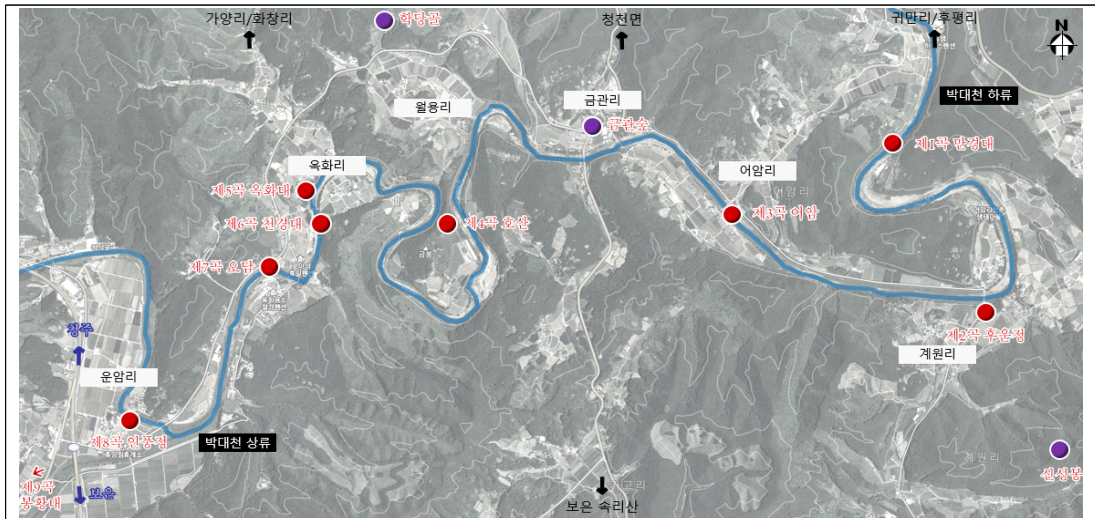
옥화 지역은 원래부터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 아니라, 이처럼 함양박씨, 파평윤씨, 경주이씨 등 외지로부터 덕망 있는 인사가 유입되어 형성된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옥화의 구곡과 마을은 점진적으로 또한 자연스럽게 성립·발전하고 있다.

〈그림 1〉과 〈표 1〉은 이러한 과정을 보다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4명의 지역인물을 중심으로 구곡과 마을의 변화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각 인물이 유입되며 옥화의 각 곡이 탄생하고 있고, 이러한 곡을 중심으로 각 마을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옥화구곡의 제2~5곡(후운정, 어암, 호산, 옥화대)은 초기 치암 박충좌의 후손이 처음으로 신성봉/계원리 일대로 이주하고, 그를 기반으로 윤사석과 박근원이 주로 활동하던 곳이다. 옥화리, 월용리, 금관리/어암리, 계원리는 각각 이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제5~8곡(옥화대, 천경대, 오담, 인풍정)은 이를 기반으로, 1600년대부터 이득윤과 윤승임, 그리고 그들의 문인·동료가 활동하던 곳이다. 옥화리와 운암리는 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발전하거나 탄생하고 있다. 이것은 구곡을 이용하는 형태와 관련이 매우 깊다. 각 인물은 각 곡을 일시적인 체류지가 아닌 생활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을 데리고 이주했고, 그 장소에 터를 잡고 살았으며, 그들의 생활은 후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옥화구곡이 마을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은, 구곡을 일시적인 체류의 장소가 아닌 생활지로 이용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과 〈표 1〉의 각 지점 참고). 각 곡에서의 활동(자연 속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함)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생활로 이어지면서, 그 주변은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는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구곡과 마을은 동(東)에서 「서(西)」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며 발전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이들이 활동한 시점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옥화구곡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독특한 구성이기도 하다. 옥화대에서 금관과 어암리에 이르는 곳(옥화대 동쪽, 박대천 하류)은 초기 윤사석과 박근원 등이 활동한 지역으로, 이곳은 신선 사상이나 은거 등에 대한 토착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주향인 이득윤을 제외하고는 함양박씨와 파평윤씨의 터전이 된다(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또한 현재도 이들 선조와 그 사상을 기반으로 강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옥화대에서 인풍정에 이르는 곳(옥화대 서쪽, 박대천 상류)은, 이득윤과 윤승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곡 문화가 탄생하고, 옥화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교류 및 지역의 교화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경주이씨와 파평윤씨뿐만 아니라, 다양한 씨족이 모여 사는

마을로 발전한다. 또한 이들 옥화 지역은 옥화서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 인식이 발전하며, 옥화 지역의 구곡 및 학문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즉, 옥화의 구곡과 마을은 그의 물리적 발전 과정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및 문화적 측면에서도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며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의 사상(박대천 하류)과 후기의 활동(박대천 상류)은 옥화대와 윤승임을 매개로, 상호 교화하며 하나의 지역공동체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옥화대와 윤승임은, 이러한 구곡과 문화의 합본체를 만드는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옥화구곡									
		9곡	8곡	7곡	6곡	5곡	4곡	3곡	2곡	1곡	
박대천 上流						1501년 윤사석	유사석 생활/활동 영역				박대천 下流
							박곤원 생활/활동 영역		1580년 박곤원		
				이득윤 생활/활동 영역		1609년 이득윤					
				윤승임 생활/활동 영역		1646년 윤승임	윤승임 호산정사	윤승임 생활/활동 영역			
		1630~1660년, 이홍유와 신득치 등이 활약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후 인풍정, 관란정 등이 건립됨)				1674년 주일재 설치	다양한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금관리 일대가 발전)		1673년 홍석기		
			인풍정		천경대					만경대	
			●	○	●	옥화대		●	어암	●	
		●	●	●	●	●	●	●	●	●	
청주 보은	봉황리	운암리	운암리	옥화리	옥화리	월용리	금관리 어암리	계원리 어암리	귀만리 후평리	청천 화양	
방면		박씨, 윤씨, 이씨, 홍씨 송씨, 노씨, 신씨, 임씨		경주이씨	파평윤씨 경주이씨	파평윤씨	함양박씨 파평윤씨	함양박씨 남양홍씨		방면	

주 : 음영과 ●는 각각 박대천(博大川)의 흐름과 구곡(九曲)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1〉 옥화 지역의 주요 인물과 옥화구곡 및 마을과의 관계

〈표 1〉 옥화 지역의 주요 인물과 옥화구곡 및 마을의 관련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 단계	<p>① 1400년대 중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암 박충좌의 후손(박송탕)이 최치원의 전설이 있는 청주 근교(신성봉 일대)로 이주 · 이들이 정착하며 계당 또는 계원리라는 마을이 탄생(마을에는 400년이 넘는 느티나무와 지당이 있음) · 최치원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탄생(신선주, 후운정, 계원팔경, 계원찬가 등이 탄생) · 계원팔경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별세계를 이룸(꽃고개/옥녀봉/신성봉/괴강/학동/계당/고운대/후운정)
2 단계	<p>② 150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1년 만둔암 윤사석이 가족을 데리고 옥화대에 내려와 만경정과 수훈정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해 주자와 도연명의 삶을 실천하며 후학을 양성함 (실질적인 구곡 문화가 탄생) · 옥화는 학문과 교류의 땅이 되고, 그 후손(윤진)이 번창하며, 옥화리, 월용리, 어암리에 집성촌이 형성 · 1580년 옥계 박근원이 고향으로 돌아와 사서오경과 근사록으로 읽고, 서당을 열고 후학을 가르치며 마을 일에 앞장섬 · 월용리 일대에는 서당골과 옥계라는 지명이 탄생. 형 박건원이 금관에 터를 잡고, 박근원이 계원에 터를 잡으며, 금관과 계원 일대에 그의 후손이 번창(함양박씨 집성촌을 이룸)
3 단계	<p>③ 160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9년 서계 이득윤이 혼란한 정계를 피해 옥화대에 내려와 구곡을 설정하고, 춘풍당과 추월정이란 정자를 짓고 주자의 길을 걷고자 학문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 · 옥화대에 머물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가례/사창, 역학/육가/거문고 등이 발전) · 옥화대 주변이 더욱 발전 (옥화리가 새롭게 탄생) · 1646년 효종 때 장예원판결사를 지낸 주일재 윤승임이 옥화대에 세심정을 짓고, 후학을 가르치고, 동료들과 교류. 주변 지역은 더욱 크게 발전 · 윤승임에 의해 호산에 호산정사가 만들어지고, 홍석기에 의해 계원에 후운정(1673)이 만들어짐 · 이홍유, 홍석기, 윤승임 등에 의해 다양한 시문학이 발전 · 윤승임이 사림의 종장으로 근무하며, 후학양성, 가례, 계 등 지역의 다양한 교화발전이 이루어짐 · 옥화리와 월용리가 더욱 발전(강당마을, 학당골이라 불림)
4 단계	<p>④ 1700년대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7년 이득윤과 윤승임을 흠모하던 문인과 지역유지 등에 의해 송현사가 건립, 옥화서원으로 바뀌며, 옥화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공동체 인식 발전 · 옥화서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특이한 삶과 문화는 주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옥화대 서쪽(박대천 상류)에는 새로운 정자와 마을이 형성되고, 1800년대가 되면 옥화 지역은 그 영역이 운암리까지 확대 · 이득윤의 후손에 의해 옥화구곡시가 탄생하고, 이들을 찬양하는 다양한 글과 시설보수 등이 추진

자료 : 앞서 III장에서 기술한 내용, 관련 인물 정보, 미원면지(2003) 및 청원군지(2006) 등을 토대로 작성

2. 옥화구곡시에 나타난 구곡과 마을의 관계

한편, 옥화 지역에는 1609년 이득윤에 의해 옥화구곡이 설정되고, 이득윤이 친히 5곡 위에 정자를 짓고 생활하며 본격적인 구곡의 문화가 시작된 것에 있다. 그런데 「옥화구곡시(1883)」에 따르면 그 구곡의 대상은 ① 만경대, ② 후운정, ③ 어암, ④호산, ⑤ 옥화대, ⑥ 천경대, ⑦ 오담, ⑧ 인풍정, ⑨ 봉황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범위는 박대천이 시작되는 운암리에서 박대천이 끝나는 청천까지의 구간으로, 그 대상은 박대천의 주요 경관뿐만 아니라, 4명의 지역인물이나 지명 등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 〈표 2〉는 옥화구곡시에 나타난 옥화구곡의 해설(이상주, 2007)과 옥화 지역과 관련된 주요 지명과 인

물과의 관계를 조사해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전체 36구 중 9개 구가 이러한 지명 및 역사적 실체(인물, 정자, 마을)와 직접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곡 「만경대(萬景臺)」는 박대천 하류에 담긴 물과 그 물에 비친 자연경관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곳은 실제 박대천의 물줄기가 모여 청천을 이루는 곳으로, 그 이름은 일찍이 1501년 윤사석이 옥화대에 내려와 「만경정」을 짓고 그 경관을 즐기며 도를 실천했던 것과 연관된다. 그리고 제2곡 「후운정(後雲亭)」은 최치원의 전설을 노래한 것인데, 이곳은 실제로 1672년 홍석기가 낙향해 고운 최치원을 그리며 「후운정(1673)」을 세워 시를 짓고 생활했던 곳이다. 제3곡 「어암(漁岩)」은 물고기가 뛰어노는 맑은 냇가를 노래한 것인데, 이곳은 원래 계원리와 금관리 사이에 있는 냇가로 「어암」은 박승탕의 호이자 어암리의 실제적인 지명이 된다. 제4곡 「호산(壺山)」은 박대천의 물줄기가 암벽을 타고 휘도는 풍경을 노래한 것인데, 이곳은 실제 윤승임이 「호산정사(壺山精舍)」를 짓고 후학을 배양하던 곳이다.

또한 제5곡 「옥화대(玉華臺)」는 박대천의 중심이고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은 일찍이 옥화구곡을 설정한 이득윤이 무이구곡을 실천하기 위한 적지로 판단해 「춘풍당(春風堂)」과 「추월정(秋月亭)」을 짓고 구곡 운영을 직접 실천한 곳이고, 또한 그의 후계자인 윤승임이 「세심정(洗心亭)」이란 정자를 짓고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기도 하다.

제6곡 「천경대(天鏡臺)」는 옥화대에서 내려다보이는 절벽과 그것이 물에 투영되는 아름다운 경관을 말하는 것인데, 구곡사에서 그 앞쪽에 묘사되고 있는 유령들과 학정리, 안심곡은, 이상주(2007)에 따르면, 이득윤이 거처했던 작은 동리가 있던 곳이다. 또한 제7곡 「오담(鰲潭)」은 자라가 사는 연못을 뜻하는 곳인데, 이곳은 옛날부터 연못이 있었고, 기록에 따르면 윤승임은 이득윤을 모시고 제5곡 옥화대부터 7곡 「오담(鰲潭)」까지 자주 산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제8곡 「인풍정(引風亭)」은 바람이 불어오는 정자를 묘사한 것인데, 이곳은 박대천이 시작되는 곳이자, 또한 이곳은 주로 옥화서원이 건립된 1717년 이후 형성된 곳으로 함양박씨, 파평윤씨, 경주이씨는 물론 은진송씨, 남양홍씨, 교하노씨, 풍산임씨, 고령신씨 등 다양한 씨족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9곡 「봉황대(鳳凰臺)」는 서쪽으로 바라다보이는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곳은 박대천의 물줄기가 생성되는 곳이자, 이상주(2007)에 따르면 학문(성리학)의 이상인 중국의 산둥(山東)을 가리키고 있다.

즉 옥화구곡은 최초 이득윤에 의해 박대천을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산수”를 지정한 것에 있으나, 실상 그 대상은 “옥화 지역에서 활동한 4명의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장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옥화구곡시에 나타난 옥화구곡의 구성

옥화구곡	옥화구곡시(玉華九曲詩)	지명	역사적 실체	비고
제1곡 만경대 萬景臺	<p>■ 만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는 대</p> <p>1구: 일곡이라 푸른 병풍 같은 만경대(萬景臺)</p> <p>2구: 못 산이 깎아지른 듯 서 있으며 물이 감싸 도네.</p> <p>3구: 유객(遊客)을 속세의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는데</p> <p>4구: 문득 신령스런 구역(區域)으로 들어가니 눈이 확 트이더라.</p>	●	●	새로운 세계로 진입
(후평리) 제2곡 후운정 後雲亭	<p>■ 고운 최치원의 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자</p> <p>1구: 이곡이라 강가의 정자(亭子), 정자 위로 구름이 떠가는데.</p> <p>2구: 내 마음 기쁘고 즐거워 그대(崔致遠) 따라 가고 싶네.</p> <p>3구: 물가에 해는 졌는데 부질없이 서성이며</p> <p>4구: 귀 씻은 사람들과 인연(因緣)하니 정치에 관한 일은 듣지 않네.</p>		● ● ●	자연속 삶의 꿈과 이상
(계원리) 제3곡 어암 漁巖	<p>■ 물고기를 잡는 바위</p> <p>1구: 삼곡이라 차가운 냇물이 감도는 백척의 바위(漁巖)</p> <p>2구: 어부는 노에 기대어 한낮에 단잠을 자네.</p> <p>3구: 강가의 아이들이 석양 멀리서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p> <p>4구: 백조 한 쌍이 날아가고 물은 남쪽으로 흐르네.</p>	●	●	
(어암/계원) 제4곡 호산 壺山	<p>■ 병의 목처럼 잘룩한 형태 산</p> <p>1구: 사곡이라 일봉(劔峰)을 지나 다시 호산(壺山)인데</p> <p>2구: 누가 이곳에 참다운 근원(根源)이 있는 줄 알까나.</p> <p>3구: 다행이 봄바람을 나에게 빌려주어</p> <p>4구: 꽃을 꽃고 버들개지 노래하느라 일찍이 실 틈이 없네.</p>	●	●	도의 근원
(월용리) 제5곡 옥화대 玉華臺	<p>■ 동그란 옥 모양을 한 대</p> <p>1구: 오곡이라 황량한 누대 옥화대(玉華臺)</p> <p>2구: 춘풍당(春風堂)과 추월정(秋月亭)은 도인(道人)이 살던 집.</p> <p>3구: 누군들 앞쪽만 바라보다 뒤를 소홀히 하지 않으리.</p> <p>4구: 산위의 선령(仙靈)이 멀지 않음을 알겠네.</p>	●	● ●●●	중심 - 변환점
(옥화리) 제6곡 천경대 千景臺	<p>■ 천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p> <p>1구: 옥곡이라 자하봉(紫霞峰)의 형상은 천태만상</p> <p>2구: 바위에 꽃 제방의 나무 새벽하늘에 돌보이네.</p> <p>3구: 유령리(有靈里) 학정리(鶴頂里) 안심곡(安心谷)</p> <p>4구: 맑은 경치(景致) 살아있는 그림 가에 죽 이어지네</p>	●	●●●	새로운 변화
(옥화리) 제7곡 오담 鰲潭	<p>■ 자라가 사는 연못</p> <p>1구: 칠곡이라 깊고 깊은 오배담(鰲背潭)</p> <p>2구: 삼베 돛에 봄비 내려 파르스름한 아지랑이 방울지네.</p> <p>3구: 물의 근원(根源)을 찾으려 머리를 돌려보니</p> <p>4구: 촌 동네 두 세집 띄엄띄엄 붙어있네.</p>	●	●	물의 근원
(운암/옥화) 제8곡 인풍정 引風亭	<p>■ 바람이 불어오는 정자</p> <p>1구: 팔곡이라 탁 트인 인풍정(引風亭)</p> <p>2구: 바라보니 가로놓인 다리 돌 빛이 푸르네(靑石橋)</p> <p>3구: 바람이 가슴을 후련하게 하여 돌아가는 길 잊고 있는데</p> <p>4구: 물새 산새 지저귀는 소리 귓전에 요란하네.</p>	●	● ●	自然 + 人
(운암리) 제9곡 봉황대 鳳凰臺	<p>■ 鳳凰臺 봉황이 깃드는 곳</p> <p>1구: 구곡이라 하늘가에 솟은 봉황대</p> <p>2구: 온갖 맑은 광경 눈앞에 다가오네.</p> <p>3구: 유객 이로부터 눈 있음을 자랑할 수 있으니,</p> <p>4구: 산동(山東)의 화곡이 정말 넓디넓네.</p>	●	● ●	신선 계

자료 : 옥화구곡시에 나타난 각 곡의 내용은 이상주(2001/2007)의 해석을 토대로 하고 있음

주 : 지명과 역사적인 실체는 관련 자료와 현장답사를 토대로 하고 있음

주 : ●는 지명이나 역사적 실체는 명확히 있는 것, ●는 지명과 역사적인 실체가 중복되는 것을 표시한 것임

3. 정리

따라서 옥화구곡은 다른 구곡과 같이 한 개인에 의해 일시에 창설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발전해 온 것에 있고, 구곡과 마을, 마을과 구곡이 함께 발전하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된 것에 있다. 또한 옥화 지역의 구곡과 마을이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구곡을 일시적인 거처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지」로 이용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박대천의 수려한 자연과 인물이 만나 옥화구곡이 탄생했고, 그들의 삶이 그 장소에서 이어지면서 옥화구곡을 토대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마을 및 문화가 탄생한 것에 있다. 바꿔 말하면, 옥화 지역은 구곡의 새로운 문화를 통해 마을이 발전하고, 또한 마을의 문화를 통해 구곡이 발전한 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

V. 옥화구곡의 장소(문화)적 특성

1. 옥화의 인물들이 직접 만들어낸 장소적 행위와 문화

옥화구곡을 조영한 인물들은 어떠한 사상과 철학을 갖고 구곡을 즐겼는가? 옥화구곡은 다른 구곡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자연에 은거하며,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고매한 철학이나 사상, 또는 자연에 대한 과도한 몰입 등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형태의 학문과 생활문화가 발전하고 있다.

1) 학문의 보급과 실천 : 가례와 향약·사창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근원과 이득윤이다. 박근원은 평생을 학문과 덕행을 익히고 성리학을 실천한 인물이다. 그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서오경(四書五經)과 근사록(近思錄)을 읽고 고금 일에 박통하였으며, 집에는 서당을 설치하여 후학을 가르치고 유교의 윤리도덕을 향리에 널리 보급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공은 스스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은 반드시 믿음직하게 하고 행실을 돈독히 하며, 매사에 검소한 생활을 하고 항상 겸손하였으므로, 모두가 공을 공경하고 사모하였다.」 기술되고 있다(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⁹⁾ 한편 이득윤은 조석으로 학문을 읽고 후학을 가르치며 도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도(道)의 실천」이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집안에서 행해야 할 법도를 「가례(家禮)」로 정해 실천하고, 마을에는 「향약(鄉約)」과 「사창(社倉)」을 직접 만들어 운영했다.¹⁰⁾ 특히 향약은 괴산군수 시절에도 크게 적용해 백성들에게 큰 칭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국조인물고, 위키 실록사전).

9) 근사록에서 「근사」란 자하가 '간절하게 묻고 가까이서 생각한 것'에서 따온 것이며, '인간들이 날마다 쓰는 것'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장동익, 1992: 다음 백과). 따라서 박근원은 이러한 「근사(近思)」를 실천(성리학을 배우고 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10) 향약과 사창은 일찍이 주자가 무이구곡을 통해 실천한 것으로, 성리학을 실천하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2) 거문고와 육가

한편 이득윤은 거문고를 창시하고 육가를 발전시킨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조영임(2009)은 이득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득윤은 거문고를 창시한 사람으로 거문고에 대한 기록을 전부 모아 『현금동금유기』라는 최초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금명(琴銘)』에는 거문고에 대한 서계의 생각이 집약되어 있다. “주역은 소리 없는 거문고여, 거문고는 바로 소리 있는 주역이다.” 서계 학문과 사상의 중심축에는 주역과 거문고가 있다(조영임, 2009)....」. 한편 그는 육가 창작의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육가는 자연을 6언절로 노래한 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 육가는 이득윤의 큰 할아버지인 이별과 이득윤의 백부인 이정에 의해 시작되어 이득윤에 의해 완성되고, 이것은 다시 그의 아들 이홍유의 『산민육가』를 통해 더욱 발전한 것으로 나타난다(임형택, 1994; 이상원, 2012). 이득윤의 삶을 연구한 조영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득윤의 시집에서 보이는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일상적이고 자잘한 현실에서 느끼는 정회를 담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산수지락을 즐기는 취미가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사물을 묘사하는 공교로움과 승경을 읊은 아름다움은 말로 할 겨를이 없어서 또 옥화육가를 지어서 서계육가와 합하여 12곡을 이루었으니, 한가히 거하는 멋과 무궁한 즐거움을 다 말하여 그 심회를 기탁한 것이다(조영임, 2009)....」. 즉 학문과 주역을 즐기며 실천하는 요소로서 「주역과 거문고」가 있고, 자연의 감흥을 표현하고 즐기는 요소로서 「육가」라는 새로운 문학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악기와 문학을 즐기고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학문적 교류와 시문학이 탄생하고 있다. 이득윤은 김장생, 정두원 등과 직접 만나고 또한 서신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주역과 거문고를 「현금동문유기」로 완성시키고 있다(서계집, 1883; 규장각 서계집). 또한 이득윤의 아들 이홍유(1588~1671)는 “산민육가(山民六歌)”를 통해 육가를 더욱 발전시킨 인물로, 신득치(1592~1649), 신지익(1596~1640), 홍석기(1606~1680) 등과 시와 문학을 통해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돈헌문집, 1890; 돈헌공 이홍유, 2015).

3) 자연적 삶 속에서 얻어지는 人生的 眞樂

한편 윤승임은 스승 이득윤을 한결같이 따르고 모시는 것이 남달라 「주일재」라는 호를 갖게 되었는데, 그 뜻은 송시열에 의해 「경(敬)」으로 정리되고 있다. 즉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한결같이 스승을 따르고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다(송시열의 주일재잡, 1674). 윤승임은 이처럼 경(敬)을 완벽히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윤승임이 쓴 「주일재집 백락시(百樂詩: 백 가지 즐거움을 노래한 시)」를 보면, 그가 옥화구곡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다. 윤승임은 백락시에서, 옥화구곡에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 아래 백락시에 대한 문구는 김용남(2009)의 해석을 토대로 본 것이다.

- 徘徊景亭 春風樂. 만경정을 배회하며 봄바람을 쐬는 즐거움
- 散步華臺 秋月樂. 옥화대를 산보하며 가을 달을 감상하는 즐거움
① [저자 해석] : (선현의 길을 따라 학문을 닦으며), 자연을 걷고 감상하는 즐거움
- 壺山精舍 養賢樂. 호산정사에서 어진 이를 기르는 즐거움
- 廣得英材 教育樂. 널리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즐거움
② [저자 해석] (이득운의 대를 이어), 어진 이를 가르치고 인재를 육성하는 즐거움
- 浴呼潭下 詠歸樂. 옥호담 아래에서 목욕하고 노래하며 돌아오는 즐거움
- 風呼臺上 冠童樂. 풍호대 위에서 관동(冠童: 동료 몇 사람 등)과 바람 쐬는 즐거움
③ [저자 해석] 동료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어울리는 즐거움

그리고 백락시의 총평에서 그는 이러한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풍호대(風呼臺) 위에 관가정(觀稼亭)을 짓고, 최적대(吹笛臺) 아래에는 세심재(洗心齋)를 지어 독서하는 틈에,
- 복건(幅巾)을 쓰고 소탈한 들웃 차림으로 꽃 피고 달뜨는 저녁에 노닐다가, 뜻에 맞는 곳을 만나면 종종 읊조리다가 담담히 돌아오니,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을 알지 못했네.

즉 구곡의 생활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3가지 즐거움(자연을 걷고 즐기는 즐거움, 어진 이를 가르치고 인재를 육성하는 즐거움, 동료와 함께 자연을 즐기며 어울리는 즐거움)을 통해 「인생(人生)의 진정한 낙인 진락(眞樂)」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옥화의 인물들이 만들어낸 장소적 행위와 문화를 보면, 옥화구곡은 항상 훌륭한 경승지나 임시적인 낙향의 장소가 아닌,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형태의 학문과 문화, 그리고 자연 속 삶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벗과 함께, 학문과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움) 옥화구곡이 갖는 중요한 장소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2. 4명의 인물이 지역에 미친 영향

그러면 구곡의 조영자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행위와 문화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 <표 3>과 <표 4>는 이러한 구곡의 문화가 지역에 미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 옥화 지역에서 나타나는 학문과 생활면의 특이한 현상을 조사해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이들이 남긴 영향은 크게 2가지가 관찰된다. 그 하나는 옥화구곡의 인물과 학문이 청주지역의 사림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옥화 지역에서는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협업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청주사림의 탄생

청주지역에서 사림은 1570년 설립된 유정사원을 중심으로 탄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득윤과 그의 동료 및 문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박곤원은 이득윤과 함께 유정서원의 설립을 가장 앞서 발의한 인물로 나타나며(청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이득윤은 변경수와 함께 모계 조강을 도와 유정서원을 창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전호수, 2009). 그리고 변경수를 시작으로 변시복, 조강, 이득윤, 홍순각 등은 직접 유정서원의 원장을 역임하며 청주의 사람을 이끌어 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섬계 이잠(이득윤의 부친)의 문인이자 이득윤의 학문적 동료가 된다.

한편 이득윤과 그의 문인인 이시발, 홍석기, 이덕수, 이홍유, 윤승임, 신지익, 변시망 등은 유정서원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 등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득윤은 유정사원의 창건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유정서원의 원장으로 추대되어 서원의 재건(동재와 서재를 구축함으로써 서원의 면모를 갖추)에 앞장섰고, 유정서원에 직접 배향된다. 이시발은 유정서원 재건에 직접 참여하며 상량문을 올렸고, 이덕수는 유정서원의 원장을 역임하며 특히 청주지역 사족이 계승/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이해준, 2009)¹¹⁾. 그리고 이홍유, 윤승임, 홍석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옥화 발전에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고, 한백겸, 이시발 등은 청주성 탈환(임진왜란)과 동국여지승람 제작에 참여하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고, 신지익, 변시망 등은 향촌 사회의 리더로서 새로운 학문과 지역 발전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난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통해 발전한 옥화의 인물과 학맥은 안으로는 옥화에 새로운 학문과 문화의 뿌리를 내리는 한편, 밖으로는 청주사림을 이끌며, 옥화 지역뿐만 아니라 청주라는 거대 사회의 사림/향촌 문화를 탄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있다. 특히 이들의 활동 시기를 보면, 유정서원이 설립된 1570년부터 유정서원이 사액을 받아 신항서원으로 이름이 바뀐 1660년까지 많은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영남학파, 기호학파 등의 구분이 없는 시절이고, 옥화 지역 측면에서 보면, 윤사석 이후 구곡 문화가 새롭게 시작되고 번창하는 시기다.

「모계집」에 따르면, 청주의 어진 선비를 「낭성팔현」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낭성팔현은 이득윤과 그의 문인들이 주를 이룬다. 즉 「고을에는 이름난 선비와 큰 덕이 있는 이가 계속 배출되었으니, 송재 한충, 강수 박훈, 규암 송인수, 선생(모계 조강), 화곡 정사호, 사계 이득윤, 이유당 이덕수, 만주 홍석기와 같은 분들이다. 공들의 연대는 비록 멀지만, 모두 동일한 마을 출신이고 충효와 학문, 문장과 덕업이 으뜸인 까닭에 세칭 “郟城八賢”이라 한다.」고 기록되고 있다(임동철, 2002). 즉 낭성팔현이란 충효와 학문, 문장과 덕업이 으뜸인 지역의 어진 선비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 낭성팔현 중 4명이 이득윤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옥화의 인물들이다. 이처럼 이득윤과 그의 동료 및 문인들은 청주지역 사림 및 향촌문화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있다.¹²⁾

11) 이득윤의 문인은 이덕수는 이득윤 학파와 모계 학파의 계열을 계승한 정통 계승자이자, 청주지역에서 향약보급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이해준, 2009; 전호수, 2009)

〈표 3〉 청주지역의 사람과 옥화 지역 학맥과의 관계

구분	내용
이득윤의 동료/문인	<p>□ 섬계 이잠의 문인 18명 중 특히 이득윤(서원 활동 등)과 관련이 깊은 인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대건 • 박곤원 • 조 강(원장) • 변경수(원장) • 이득윤(원장) • 변경복 • 홍순각(원장) 등
	<p>□ 서계 이득윤의 문인 28명 중 이득윤(서원 활동 등)과 관련이 깊은 인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덕수(1577-1645) 신항서원 원장, 청주 사족의 학문을 계승발전 시키는 데 크게 공헌 • 이시발(1569-1626) 이대건 아들, 청주성 탈환 및 청주 사족의 학문 계승발전에 공헌 • 한백겸(1552-1615) 호조좌랑·형조정랑, 청주목사, 동국지리지 저술 • 신지재(1562-1624) 창녕부사 때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을 토벌,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 • 이광윤(1564-1637) 이득윤의 동생,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 양서집 출간 • 변시망(1587-1665) 변경복 손자/이득윤의 사위, 병자호란 의병장으로 활약, 운암리에 묘소 • 신지익(1588-1649) 화창리 출신/신지재 중형, 효검으로 벼슬에 천거, 삼강행실도(삼효각), 치계팔경 • 이홍유(1588-1671) 이득윤의 아들, 옥화 지역의 산장/도훈장으로 추대, 산민육가 저술 • 변시익(1598-1653) 비상리, 변경복의 손자(변시망의 동생), 청백리와 충효로 이름이 높음 • 윤승임(1603-1688) 이득윤의 대를 이은 제자, 옥화 지역의 산장/도훈장 • 홍석기(1606-1680) 신항서원 원장, 민첩한 시작과 다양한 시체를 구사한 시인으로서 이름이 높음 • 김익희(1610-1656) 감장생 손자(이덕수 사위) • 신득치(1592~1656) 물정리 출신(신지익), 낙우당구곡 설정
유정서원 ↓ 신항서원	<p>□ 1570년 유정서원 설립 : 청주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곤원은 초기 유정서원의 설립을 가장 앞서 제기하고, 직접 제를 올린 인물로 기록되고 있음 • 모계 조강은 이득윤(18세)과 변경수와 함께, 고을 여러 선비와 상의해 유정서원을 설립 • 1608년 이득윤이 유정서원 9대 원장으로 취임해 서원 중수에 힘써 (이시발이 중수상량문을 씀)
	<p>□ 1660년 유정서원이 사액을 받아 「신항서원」으로 이름이 바뀜 : 三南 제1의 서원으로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2~1665년, 서원 중수 : 이이를 주향으로 정함. 이이의 신위를 따로 모심 • 1673~1685년, 송시열에 의해 서원 중수 및 신항서원 모정비 건립 ** 송시열은 60세인 1666년부터 본격적으로 화양동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함 ** 송시열은 이때부터 자주 청주에 들러 신항서원 일에 직간접으로 관여함
남성팔현	<p>□ 조강의 「모계집」에 등장하는 남성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충 (생략) • 박 훈 (생략) • 송인수 (생략) • 조 강 (생략) • 이득윤(1553-1630) : 유정서원 창건주도/유정서원 9대 원장(1608), 옥화구곡 설정/운영 • 정사호(1553-1616) : 미원면 화창리 출신의 선비, 이득윤과 많은 교류를 가진 옥화주변의 인물 • 이덕수(1577-1645) : 이득윤의 문인/ 유정서원 원장/ 청주지역 사족의 계승발전을 이끈 리더 • 홍석기(1606-1680) : 이득윤의 문인/ 유정서원 중수 상량문(1650) / 당대 최고의 문장가 / 후운정

자료 : 고수연(2015), 이상주(2009), 이종관(2015), 이해준(2009), 임동철(2002; 2009), 전용우(2002), 전호수(2009), 조영임(2009),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을 토대로 작성

12) 옥화구곡을 연구한 이상주(2009a; 2009b)는 옥화구곡을 중심으로 학문적 연계를 갖고 활동한 이들을, 청주 동쪽에 있는 학파를 의미한다는 뜻에서「산동학파」라 부르고 있다.

2) 옥화 지역 :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협업문화의 발전

한편 옥화 지역에서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협업문화가 발전한다. 옥화 지역에서는 일찍이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함께 배우고 어울려 사는 문화가 발전했지만, 1717년 송현사(옥화서원)이 설립되면서, 이러한 지역공동체 인식은 더욱 크게 발전한다. 4명의 지역인물을 함께 배향하고, 서원을 함께 운영해 가며 지역공동체 인식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김용남(2009)에 따르면, 옥화대는 일찍이 이득운이 자리를 잡고 강학을 하고 또 구곡을 설정하여 음영하면서 세인에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 이득운 사후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 「옥화서원」이 건립되면서, 청주사람들의 교육문화의 공간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된다. 또한 그는 「추월정과 세심정을 중심으로 향촌의 못 선비들이 출입하며 교분을 나누고 학문적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이곳은 일찍부터 「강당마을」로 불렸으나, 이러한 강당마을이 옥화서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서, 옥화대라는 명칭도 하나의 특정한 장소가 아닌 5개 마을을 아우르는 지명으로 호칭되기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강성복(2002)과 청원향토문화연구원(2006) 등에 따르면, 옥화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인식을 토대로, 1800년대가 되면 각종 계를 중심으로 협업문화가 크게 발전한다.

① 계원리 (함양박씨와 파평윤씨)

계원리에는 후운정마을을 중심으로 250년 넘게 산신제가 이어온 것에 있으나, 1853년 후운정, 계당, 인봉마을(어암리)이 함께하는 계원리 대동계라는 것이 탄생하면서, 상여계, 다리계, 방죽계, 연방계, 친육계 등 5개의 계가 발전하게 된다.

② 옥화리 (경주이씨와 파평윤씨)

또한 옥화리에서도 산사계가 중수되면서, 경주이씨와 파평윤씨가 주체가 되어 각각 산신제와 탐제를 지내게 되었고, 1853년부터는 이러한 산신제 및 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강당말과 괴머리골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산신계가 설치·운영된다. 계원의 수도 1882년 35명으로 출발해 1965년 174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그 조직도 28개 성씨가 함께 참여하고, 상층민과 하층민이 어우러지는 조직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공통되는 특성

그런데 이들 계는 특히 2가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들 계가 산신, 다리, 상여, 방죽, 양수 등 옥화 지역의 구체적인 장소 및 행위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공동자산을 만들며 이러한 계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옥화의 인물들이 추진해 왔던 실천학문과 매우 관련성이 높다. 그리고 옥화서원이나 각종 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선조와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상당히 큰 것에 있다. 즉 옥화 지역에서는 옥화서원을 모티브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문화는 계와 제례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옥화의 구곡과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표 4〉 옥화 지역 :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협업문화 발전

구분	내용
1400년대 ~ 1600년대	□ 각 곡과 마을을 중심으로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문화가 발전
1500년대 ~ 1700년대	□ 옥화구곡의 조영자와 그들의 문인에 의해 청주지역의 사림 탄생과 향촌 문화 발전에 기여
1800년대	<p>□ 옥화 지역에는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협업문화 발전</p> <p>① 후운정, 계당, 인봉마을이 함께 4개의 특성적인 대동계를 결성 운영(185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여계 : 有司를 정하여 상여 출차를 관리 (연 1회) (상을 당하면 막걸리 10말, 양초 10갑을 상가에 기증, 상여 행차에 공동으로 참여) • 산신계 : 신성봉 소나무 숲속에 계당을 정하여 정월 초 7일간 정성을 드리고 한해 무사 기원 (신성봉에 산신각 설치, 마을 입구에 서낭당 설치, 주거지에 토주 설치) • 다리계 : 매년 기금을 조성(일부 기금을 늘려 전답을 구입)해 봄/가을에 나무다리를 놓음 다리가 완공되며 풍악을 울리며 개막식 추진 (1980년까지 운영) (남자는 다를 놓고, 여자는 식사를 준비, 다리계 전답 운영, 미자조를 수급하여 운영) ** 1992-09 계원리 마을자랑비 설치, ** 1998-05 다리유래비(忠孝處世) 설치 • 방죽계 : 농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작인들이 계를 조직해 방죽 수리 관리와 물의 적절한 사용 (1972년에는 양수장 설치도 추진,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농토-경작자 간의 방죽계) • 연반계 : 상사 등에 등을 달아주고 각종 지원을 공동으로 해 나감(1975년까지 운영) • 친육계 : 마을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 보유 지나온 유사를 기록하고, 마을 재산을 관리하고 마을 주민의 친육과 단합을 그리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 규약과 도덕적인 실천사항을 구성 (1991.1 후운정 마을 유래사 회칙 및 장부) <p>• 기 타 : 이외 후운정의 洞契/座目, 두원리 및 금관리의 동물유지계, 계원리의 체일계 등이 있음 (체일계 : 마을 대소 행사 때 遮口를 빌려주는 대가로 쌀을 거두는 것, 1978년까지 지속)</p> <p>② 옥화리와 그 주변 마을이 함께 산사계 등을 결성 운영 (1859년 결성, 1882년 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이씨와 파평윤씨 및 안동김씨가 주체가 되어 산사계 중수 춘추로 제사를 받들고 그 뜻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함. 산제답 마련 • 경주이씨와 파평윤씨가 주체가 되어 신신제, 탐제 결성 운영 태산고약은 고대 성왕의 봉소요 명구산릉은 옛 현유의 기도처다. 오직 우리 동방은 산천이 편다하여 위로부터 아래까지 인민에게 이르러 정성을 다함이 없지 않으니 기도드리는 일에 어찌 불경하리오. 또 소홀할 것인가. 이와같이 지극하게 이 산 아래, 마을마다 제사하고 사람마다 정성을 드려온 지 몇백 년이 되었도다. • 괴머리골(미동산) 골자기에 신신당과 3개 돌탑 조성 • 산신제 및 탐제를 운영하기 위해 산신계 운영(강당말과 괴머리골 주민 전체) • 1882년 35명→ 1965년 174명, 28개 성씨/상하민이 어우르는 조직 • 산제답 운영 • 재정이 늘어남에 동중지사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규정(동물 공동 구비, 긴급사용) • 조조와 추입자 입계금으로 매년 매출 증대(용자, 이자 및 원금 다음 해 회수) • 정월대보름, 시월상달 행사, 고량주가 조출한 주연, 탐제 : 전체 참가

자료: 강성복(2002), 청원향토문화연구회(2006), 국립민속박물관(청원옥화리산사계문서)를 토대로 작성

VI. 결론 및 시사점

청주시 외곽에 있는 옥화구곡은, 아직 외부에 크게 알려져 있거나 구곡으로서 크게 주목받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마을과 함께 발전해 온 특이한 역사가 있고, 이러한 구곡 및 마을의 발전에 있어서는 4명의 인물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는 지금까지의 구곡에서 볼 수 없는 옥화구곡의 중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옥화구곡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연구로서, 옥화 지역의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옥화구곡의 발전과정과 그의 장소적 특성을 검토한 것에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옥화구곡은 다른 구곡과 같이 한 개인에 의해 일시에 창설된 것이 아니라, 4단계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옥화 지역의 구곡과 마을이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구곡을 일시적인 거처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지」로 이용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들은 고매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상당히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구곡과 그 문화(자연 속에서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고, 교류하는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가례와 향약, 그리고 거문고와 육가와 같은 시문학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옥화의 인물과 문화는, 밖으로는 청주사림과 향촌 문화를 탄생시키고, 안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협업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을 토대로 보면, 옥화 지역은, 구곡의 새로운 문화를 통해 마을이 발전하고, 또한 마을의 문화를 통해 구곡이 발전해 온 형태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옥화구곡을 대상으로 그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을 밝힌 것으로서, 지금까지 각각의 점으로 알려져 왔던 옥화구곡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많은 것을 다루다 보니,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특히 옥화구곡을 발전시킨 인물들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들의 사상적 연계나 특징을 밝혀 나가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몇 가지 특성은, 주로 옥화 지역 내부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구곡 등과 비교해 그 특징을 검증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것은 본 연구에서 부족한 점이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연구과제라 판단된다.

옥화구곡은 최근 산책로 등이 만들어져, 과거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들고 있다.¹³⁾ 또한 올해 1월 공표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8월부터 시행되고,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역사문화권과 Lake Park Renaissance 구상을 연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옥화구곡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옥화구곡이 일반적인 구곡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13)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는 2020년 전후부터 충청권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옥화구곡에 관광길(산책로 등)이 조성되었다.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옥화구곡은 일시적인 경관지나 거처가 아니다. 또한 특정한 문파나 사상에 얽매인 곳도 아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함께 살아가는 생활지로서의 의미가 크며, 인간의 참된 도리를 실천하는 교류처로서의 의미가 크다. 또한 그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가례와 향약, 거문고와 육가와 같은 시문학)가 발전하고 있고, 그(지역에 대한 애착)를 통해 구곡과 마을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문화권을 새롭게 향유·발전시켜 나가는 옥화구곡의 자원 및 특성 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상과 체계를 어떻게 전달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한편, 구곡을 설정하고 조영해 나가는 기술과 방법은, 한국인의 미학과 전통조경학(Traditional Landscape)을 다루는 중요한 학문 분야가 된다. 또한 이러한 기술과 방법은 지역학과 지역관광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옥화구곡의 체계가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두에 기술하고 있듯이, 옥화구곡은 마을과 함께 발전해 온 특이한 역사가 있고, 이러한 구곡 및 마을의 발전과정에서 4명의 지역 인물이 깊이 관련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존의 구곡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특성이다. 본 연구는 그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를 찾는다면, 이러한 1차 연구를 통해, 옥화구곡만이 갖는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을 밝혔다는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단지, 이러한 형태나 방식이, 기존의 구곡(九曲)이나 별서(別墅) 및 사가원림(私家園林)을 조영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규명할 수 있다면, 그 학술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2차 연구는 앞으로 추진해 가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로 인식된다.

【참고문헌】

- 강성복(2002). 청원 옥화리 산사계의 성격과 산신제·탑제, 국립민속박물관「민속학연구 11」. 국립민속박물관.
- 경모사복원기(1989). 「경모사복원기(敬慕祠復元記)」: 坡平尹氏 執義公派 縣監公宗中이 만둔암 윤사석을 기리기 위해 1989년 경모사를 복원하며 쓴 글.
- 경주이씨(2016). 경주이씨 4대의 육가(1~7).
- 고수연(2015a). 16~17세기 李潛·李得胤 父子의 講學活動과 門人의 動向. 호서사학회「역사와 담론」. 제73권 73호 : 193~273.
- 고수연(2015b). 조선시대 청주지역 경주이씨의 문집 간행. 충북연구소 「충북학」. 제17집: 8~2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2906>)」.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김성철(2014). 사제시간의 도리를 몸소 행한 박충좌. 「김성철 관장의 유배로 읽는 한국사 36」. 남해시대 신문 기사(2013-04-04).
- 김양식·이상주·최병철(2012). 충북의 명승과 풍류 기행. 국립민속박물관「충북의 민속문화 05」. 충청북도.
- 김용남(2009). 主一齋 尹承任과 옥화서원,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尤庵論叢」. 제2집: 345~365.
- 김정찬(2019). 절개(節概)가 군센 돈암(遯菴) 윤사석(尹師哲). 상주문화원 『상주의 인물 제6권』.
- 둔헌문집(1890). 「遯軒文集」. “산민졸음(山民拙吟)”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오던 유고들, 이홍유의 8세손인 이광영(李匡榮)이 고종 27년 교정·간행한 이홍유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간행한 시문집.
- 만경정중수기(1989). 「萬景亭重修記」 1989년 만경정을 중수하며 윤지한이 지은 비문. 淸原郡誌(下).
- 만둔암 집의공 낙향추모비(1983). 『미원면지(2003년 : 705~710쪽)』에 실려 있는 윤사석 유사.
- 미원면지편찬위원회(2003). 『미원면지』. 미원면.
- 박구원(2013). 옥화구곡의 관광자원적 발전 특성연구.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상논총」. 제6권 제1호 : 181~203.
- 박해남(2011). 이별 육가의 연원 재고. 한국시가연구학회『한국시가연구』. 제31집 : 167~184.
- 보은현감 윤전 추모비(1983). 『미원면지(2003년 : 705~710쪽)』에 실려 있는 윤전의 유사.
- 서계집(1833). 「西溪先生文集」이득윤의 6세손 이정연 등이 편집·간행한 이득윤의 시문집.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권4의 부록으로 만사·제문·행장·묘갈명·축문 등이 실려 있음.
- 세심정중건기(1867). 「洗心亭重建記」. 1867년 송근수가 짓고 송우인이 쓴 중건기. 淸原郡誌(下).
- 송시열(1674). 주일재잡(主一齋箴), 옥화대명(玉華臺銘). 송자대전(제50권).
- 윤사석 묘비(1917) 「윤사석 묘비(尹師哲 墓碑)」규정각원임직각 풍양 조병집(趙秉輯)이 짓고, 후학 이원호(李元鑄)가 그를 써, 정사년 8월 세운 윤사석의 묘비 정사. 대전시립박물관.
- 연당하우스(2015). 둔헌공 이홍유.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우리시』 2015년 12월호(통권 330호).
- 위키 실록사전(<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
- 이득윤 묘갈명(1657). 李得胤「墓碣銘」. 1657년에 이경섭이 쓴 이득윤의 묘갈명.
- 이상원(2012). 경주이씨 가문의 육가전승과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 한국시가문화학회「한국시가문화연구」. 제29권 : 233~253.
- 이상주(2001). 옥화구곡과 옥화구곡시. 충북학연구소「충북학」. 제3집 : 125~149.
- 이상주(2005). 구곡문화관광특구와 그 구곡 설정자들의 학맥,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증원문화논총」. 제9권 : 101~139.
- 이상주(2006). 조헌(趙憲)의 울원구곡(栗原九曲)과 울원구곡시(栗原九曲詩).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증원문

- 화연구(중원문화논총)』, 제10집: 25~64.
- 이상주(2007).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선인의 길을 따라 한시와 자연 속으로-. 충북학연구소 「충북학연구총서 5」, 충청북도.
- 이상주(2009a). 산동학파(山東學派) 지역 문학을 주도한 인물들. 충청일보 신문 기사(2009-04-30).
- 이상주(2009b). 이득운과 산동학파, 충청일보 신문 기사(2009-05-05).
- 이상주(2009c). 禾谷 鄭賜湖와 그의 政治的 文藝的 活動.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尤庵論叢」, 제2집: 305~334.
- 이종관(2015). 청주사립의 학맥과 서계 이득운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 1092~1110.
- 이해준(2009). 怡愉堂 李德洙와 17世紀 淸州士族,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尤庵論叢」 제2집 : 217~248.
- 임동철(2002). 낭성팔현(琅城八賢)의 생애, 충청북도 「忠北學」, 제4집 : 99~118.
- 임동철(2009). 신항서원의 역사와 배향 인물,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尤庵論叢」, 제2집 : 5~25.
- 임형택(1994). 17세기 전후 육가형식(六歌形式)의 발전과 시조문학. 민족문화사연구 6권: 6~40.
- 장동익(1992). 麗元 文人의 交遊- 性理學 導入期 高麗文人의 學問的 基盤 檢討를-. 국사편찬위원회『國史館論叢』, 第31輯 : 213~246.
- 전용우(2002). 16-17세기 충북지역의 사립과 서원, 충청북도「忠北學」, 제4집 : 7~48.
- 전호수(2009). 慕溪 趙綱의 學統과 義兵활동 재검토,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尤庵論叢」, 제2집 : 155~181.
- 주일재증건기(1760). 「主一齋重建記」, 1760년 송시열의 5대손 송환기가 지은 증건기.
- 조영임(2009). 西溪 李得胤과 그의 詩世界,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尤庵論叢」, 제2집 : 183~215.
- 조영임(2015). 둔헌공 이홍유의 시세계. 충북연구소 「충북학」, 제17집: 24~33.
- 조혁연(2014). 청원 옥화대 수계는 인문학의 보고. 충청일보 신문 기사(2014-03-18).
- 최병철(2009). 晚洲 洪錫箕와 그의 시세계,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尤庵論叢」, 제2집 : 249-282.
- 최병철(2008). 晚洲 洪錫箕의 시세계.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제20집 : 185~213.
- 최재남(1987). 육가의 수용과 전승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관악어문연구』 제12집 : 319~347.
- 청원군지편찬위원회(2006). 淸原郡誌(上), (中), (下). 청원군.
- 청원향토문화연구회(2006). 『博大川과 함께 한 400년. 청원 계원마을』, 청원문화원.
- 추월정중수기(1883). 「秋月亭重修記」, 덕은 송근수가 짓고, 권용규가 쓴 중수기. 淸原郡誌(下).
- 추월정기(1883). 「秋月亭記」, 이상설이 지은 추월정에 대한 기록. 淸原郡誌(下).
- 파평윤씨 자료(2022). 「파평윤씨 자료」, 파평윤씨 소정공 한성공파(윤희제) 참의공파(구방파)가 2006년부터 운영하는 블로그(<https://blog.daum.net/tembeng>)로, 참의공파(윤훈의 후손)와 집의공파(윤사석의 후손)에 관한 정보가 가장 잘 나와 있음.
-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함양박씨 자료실(2014). 함양박씨 집성촌, 치암공파 후손들의 뛰어난 인물.
- 함양박씨 중요 인물(1983). 함양박씨 중증이 운영했던 블로그.

접수일 : 2022. 08. 01.

1차 심사일 : 2022. 08. 04.

확정일 : 2022. 08. 26.

박 구 원

일본 九州大學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일본) 九州經濟調査센터, 경기개발연구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년부터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관광자원개발, 지역관광개발, 리조트 개발계획과 경영, 관광프로젝트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원녹지계획, 관광지역 만들기, 관광권정비사업, 생활형 리조트개발 등이다. 대표 논문 및 저서로는, 녹의 배치이론, 국영공원 제도연구, 광역관광·레크리에이션체계 연구, 산림도시 및 숲속의 도시 연구, 생활형 관광지 모델 개발, 체류형 관광지 이용 형태에서 본 광역관광권 개발 형태, 리조트 개발계획과 경영 등이 있다.